

2022 열린인생 7.

옛 자아가 죽은 명확한 증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다)

[마태복음 21:1~5]

-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1.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주인이된 삶 (하나님을 모르는 단계, 거듭나지 않은 다른 존재) - 거듭난 삶 (하나님을 아는 단계, 다른 존재가 되었음) - 제자 (종의 신분)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나는 '제자'이다. 제자는 누구인가? '종'이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모든 주권과 주도권을 주인에게 드린 삶을 말한다. 나의 주도권을 드린 종의 성품과 삶은 '겸손'으로 나타난다.

2.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빌립보서 2:6-7]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답이 예수님의 모습에 있다.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빌2:6~7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오히려'이다. 오히려라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짐작·기대와와는 전혀 반대되거나 다르게.' 를 말한다. 그 말은 그 분은 원래는 종이 아니시라는 것이다. 그런데 종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그분 스스로가 자진해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제자의 첫 단계'

자기를 부인 하는 단계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다. 자기생각, 자기감정,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비워내는 과정을 말한다. 왜냐하면 비워내지 않은 자기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비워내는 단계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종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나 분명하다.

종은 자기생각이 없다. 오직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 주인을 섬길 뿐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발적으로 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한 종과 다른 개념이다.

자기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한 삶을 말한다.

원래의 모습은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왕이시다. 그런데 종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한 그 분의 삶은 실제이다. 그래서 그 분은 왕이라는 신분과 위치에 묶이지 않을 수 있었다. 진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의 모습을 보이셨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내셨다는 것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선포이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종처럼 사신 것이다. 어떤 자신의 주도권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신 것이다.

3. 베드로 - 진짜 제자의 모습

[요한복음 21:18-19] 18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9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결국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장 놀라운 문을 여신다. 그 문은 예수님이 걸어 가셨던 '종의 문'이다. 18절에 보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라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언이다. 결국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남들이 네 팔을 벌릴 수도 있고, 나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다.

그 삶이 바로 '종'의 삶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종'된 마지막 모습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왜 '정체성이 중요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렇게 살기 때문이다.'

'부조화로 오는 갈등'

오늘 현대인의 대부분의 갈등은 바로 현실과 이상에 대한 부조화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원하는 이상이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성공'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세상은 '성공'이라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성공'한 삶의 가치를 연구한다.

미디어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성공'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성공을 통해 나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명의 수단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성공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성공'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정작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성공의 위치에 자신이 도달했지만 그 성공이 자신의 삶에 백프로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 만족을 주기는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순간적 만족이다.

그리고 그 다음단계가 보인다. 성공이라는 정상이 있다. 그런데 정상에 가니 그 정상이 영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 다음 부터는 내려오는 길인데 가장 많은 사고가 내려올 때 생겨난다. 쓸쓸함과 외로움 등 자신의 존재가 잊혀져 가는 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반면에 성공이라는 이상이 있지만 성공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시간이 갈수록 낙오자, 실패자가 되는 것 같다. 평생을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원망스럽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한 번 해보겠다는 이상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벽이 실체가 된다.

4.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닥의 장소

요나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의 삶에 풍랑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그리고 요나는 깨닫는다. 이 풍랑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 자기를 비워내는 단계로 바다로 뛰어들게 된다. (옛 자아는 죽은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큰물고기가 요나를 삼킨다. 그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한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다.

[마태복음 16:4]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다.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신 표적이다. 이 표적이 진짜 표적이다. 능력의 표적이다.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있다. 바울도 베드로도 요나의 표적을 가진 자들이다. 그곳에서 그들의 옛 자아는 죽었다.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비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 나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지는 곳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다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드웨'로 가게 된 것이다. 바로 그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선포한 며칠만에 성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일을 통해 니드웨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무슨 말인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심장이 요나에게 장착된 것이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낮아짐의 시간이 없었다면 절대 알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본 것이다.

5.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나귀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는 누구인가? 마21장의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실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존재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온다. 놀랍게도 그 존재는 '당나귀'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서 부르신 존재가 당나귀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무리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닌 5절의 말씀처럼 '겸손의 왕'으로 보이셨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세상 성공의 정점에 있는 왕과 다르다는 것이다. 욕망의 소유를 현실화하여 자신을 입증하여 군림하는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의 모습을 보이신다.

무엇이 다른가? '겸손'이다. 진정한 겸손의 의미는 '중'이 되는 것이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종의 형체가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을 사람, 예루살렘의 영광이 열린 사람은 누구인가?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나귀'와 같은 존재이다.

'나귀'는 누구인가? 쓰임 받는 나귀는 누구인가?

내 마음대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안장에 태운 존재이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이 가시는 영광의 길을 함께 가는 존재이다. 성공을 향한 야생마의 질주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보잘 것 없는 모습이지만, 철저히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는 존재를 말한다.

나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실제 예수님이 내 등에 타고 계시다고 생각해보라.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다. 내 스스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사실 두렵다. 예수님을 향한 모든 감각만 살아 있을 뿐이다.

고삐를 쥐고 계신 예수님의 작은 축삭 하나를 느끼는 존재이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나귀가 되어야 한다.

그 나귀는 예수님이 들었던 예루살렘 왕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귀처럼 살자. 나귀처럼 살자.